

『장미 이야기』의 반여성적 서술 구조: 성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심 예 리

사회 내의 복잡한 권력 구조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이데올로기의 직간접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통로로 내면화하거나 또는 그 내면화된 것에 반발하면서 생활한다. 특정 집단에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규정하는 그 나름의 코드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한 개인이 그 코드를 무시하거나 반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그 코드의 형태와 이행 요구도는 때에 따라 모호하게 보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무척 상세한 것일 수도 있고, 대충 뭉뚱그려진 불분명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코드는 강제적으로 이행되기도 하고 다른 코드는 느슨하게 방치되기도 한다. 또 개인의 경험이나 성격 차이 등에 따라서 코드에 대해 민감한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양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의 차이와 변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라고 포괄적으로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우리는 과연 사회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한 문학 작품이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떠나서 독자는 그 작품에 어떤 틀을 적용시켜 이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특정 범주 안에 위치시키면 그러한 테두리가 제공하는 법칙에 따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자의 편견에 의해 왜곡된 시선으로 작품을 해부해버릴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를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할 때는 분명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게다가 그 작품이 지금과 완전히 동떨어진 수백 년 전, 대륙의 반대편에서 쓰여진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현대의 독자가 『장미 이야기』에서 드러난 남성의 폭력성, 보다 정확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성을 논하는 것은 텍스트를 다루는 과정에서 재차 언급된 것처럼 텍스트의 밑바탕에 깔린 문화가 분

명 현재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세심한 정당화가 필요한 이유는 텍스트에서 읽어내는 이데올로기나 코드가 작가의 의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 독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좀 더 뚜렷하게 규정된 가부장제의 틀을 텍스트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화자의 의도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장미 이야기』를 분석하는 것이 장 드 땡(Jean de Meun)의 드러내고자 했던 것을 읽는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전체 하에, 본고에서는 특히 마지막 장에서 상세히 그려지는 주인공의 장미꽃을 따는(deflowering) 장면을 중심으로 드러난, 혹은 숨겨진 남성의 성적 폭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장미 이야기』의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실로 간단명료하다. 화자는 꿈에서 아름다운 정원의 연못 속 장미에 반하여 천신만고 끝에 그 장미를 따게 된다. 기욤 드 로리스(Guillaume de Lorris)는 이 간단한 줄거리의 시작에 나르시스 신화를, 그리고 장 드 땡은 그 끝에 피그말리온의 신화를 넣음으로써 장미 한 송이를 둘러싼 이 이야기에는 남성 화자의 열렬한 구애 뒤에 숨은 자기애적 욕망과 폭력적 성적 환상이 새겨지게 된다. 물론 기욤 드 로리스는 나르시스 신화가 상기시키는 자기애의 측면을 강하게 환기시키지는 않는다. 화자는 오히려 이야기를 왜곡시켜서 여성들이 남성 구혼자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하지만 나르시스의 연못이 등장하는 순간 독자는 이 신화적 인유를 통해 나르시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랑이 결국 자기애라는 점을 환기하게 된다. 이 자기애의 주제는 장 드 땡 부분에서 나오는 피그말리온 신화로 넘어가면서 긍정적 사랑(courtly love)의 맥락과 연결되어 보다 분명해진다. 이 부분에서 장 드 땡은 앞부분의 나르시스 신화를 나르시스의 자기애적 측면에서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만든 조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애의 모습은 나르시스 식의 직접적인 자기애와는 약간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피그말리온은 자기 자신이라기보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 즉 자신의 일부가 담긴 조각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피그말리온이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에 애정을 품는다는 바로 이 점에서 피그말리온 역시 자기애를 구현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피그말리온이 만든 조각은 피그말리온 자신이 여성에게 원하는 모든 기준이 구현된 존재, 즉 그의 여성에 대한 환상이 구체화된 모습이다.

It [his creation] was so pleasing, so exquisite, that it seemed as alive as

the most beautiful living creature. Neither Helen nor Lavinia, however well-formed, were of such perfect complexion or development, nor did they have a tenth the beauty. (20822-20825)

비너스 여신이 피그말리온의 창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어줌으로써 인간이 된 조각은 피그말리온의 다른 기대, 즉 순종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여성상 역시 만족시킨다. 하지만 처음에 피그말리온의 환상은 대체적으로 여성의 외모에 집중하고 있다.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헬렌이나 라비니아 같은 미녀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조각상의 빼어난 아름다움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사랑의 대상은 여성의 미에 대해 스스로가 지닌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모든 환상이 충족된 존재인 조각상이 현실 세계의 다른 그 어떤 여성보다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의 사랑은 여성을 향한 것이기 보다 자신이 원하는 가치가 여성화된 형태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그말리온은 이러한 자신의 충족될 수 없는 사랑을 나르시스의 자기애에 비교하면서 그래도 자신은 적어도 이미지를 사랑했던 나르시스에 비해 손에 잡을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더 낫다고 표현하면서도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조각상이 그 상태로는 그에게 충족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만 또한 갖게 된다.

Didn't Narcissus . . . fall in love with his own face in the clear, pure fountain? . . . I am in any case less of a fool, for, when I wish, I go to this image and *take it, embrace it, and kiss it*. . . But Narcissus could not possess what he saw in the fountain. (20867-20888)

I am completely cut off from the *delight expected by those who hope for the diversions of Love*. (20894-20895: 필자강조)

피그말리온의 사랑은 육체성이 배제되고서는 완성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다음 순간 그는 애정의 대상이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거나 부드럽게 웃어주는 것”(sweet looks and tender smiles)이 연인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 하지만 이 말은 그의 본심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끊임없이 육체적 관계가 허용되지 않는 자신의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위로가 본심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낸다.

4 □ 심예리

이 피그말리온의 신화를 통해 독자는 성적욕구의 충족이라는 본심을 부드러운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기만적인 궁정풍 사랑과 '남자'의 환상이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 그 대상의 허구적인 특성을 효과적으로 짚어낼 수 있다. 피그말리온의 인유가 『장미 이야기』의 긴 서사 속에서 차지하는 물리적인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이 인유는 이 서사 전반에 걸쳐 포착되는 궁정풍 사랑의 이면에 숨어있는 환상과 기만, 욕망에의 탐닉이라는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는 것이다.

궁정풍 사랑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자기 기만적인 욕망 충족에의 욕구는 특히 비너스의 도움으로 성이 함락되고 난 뒤 장미를 따라 가는 화자가 나이든 여자를 만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화자의 말에 따르면 나이든 여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남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상투적 표현들의 허구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여성은 치밀한 계획과 교묘한 계락을 통해 속여야 하는 대상이며 남성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말장난을 동원하는 사기꾼(the sweet-tongued talebearers)으로 그려진다.

These deceivers are those who detain the ladies with lies and drum into their ears their pleas for grace, who sigh and abase themselves, clasping their hands and crying out for favor, who bow down and kneel and flood everything with their tears, who cross themselves before their ladies so that they will have greater trust in them, who promise in sham their hearts, bodies, possessions, and services, who pledge themselves and swear by all the saints that ever were, are, or shall be, and go around thus, deceiving with words that are only wind. (21474-21494)

화자는 이 과정을 덧을 놓아 새를 잡는 일에 비유한다. 여성은 포획의 대상이고 남성의 계락은 덧이다.

They operate just as the birdcatcher does. Like a thief, he hides in the thickets and spreads his net for the bird and calls him with sweet sounds to make him come to the snare so that he can be taken captive. (21494-21497)

여기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랑을 위해 여성에게 모든 것을 내걸고 그녀의 위치를 고양시켜서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이는 자신의 목적,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남성의 목적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것일 뿐 사실 여성에게는 별 다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환상도, 기만도, 욕망의 탐닉도 모두 남성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성은 주체성을 상실한 채 운동성을 빼앗긴 존재, 즉 “생명이 없는 조각상”과 같은 형태로만 남아있다.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간 것이 손도 발도 목소리도 없는 장미와 그 장미에 이르는 길이다.

피그말리온이 그랬듯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여성에게 투영해서 그 대상과 사랑에 빠졌다고 믿은 다음 순서는 대상과의 감정 교류가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다시 말해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이다. 소유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고 곧 폭력이다. 작가는 긍정풍 사랑의 기만적인 모습이 밝히고 있지만, 폭로를 통해서 그 기만적인 모습이 감추고 있던 성적 욕망과 그 욕망을 관철시키는 폭력의 성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장미를 범하는 행위를 순례자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비유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헤라클레스가 카쿠스를 처치하기 위해 애쓰는 것에 비유한다. 순례자와 영웅의 이미지는 남성이 여성의 몸에 가하는 폭력에 의미를 바꿔 놓는다. 순례자의 경건함과 영웅의 면모와 비교되는 폭력은 분명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폭력은 영웅의 힘처럼 과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강간에 해당하는 고대 프랑스어 단어의 어원을 따져본 그라브달(Kathryn Gravdal)의 연구는 이에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짚어준다. 강간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 *femme esforcer*는 라틴어 형용사 *fortis*에서 온 단어 *fortiare*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이 라틴어의 의미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용기 있고, 남자답고, 용감하고, 대범한 등의 영웅적 면모에 대한 긍정적 뉘앙스를 띠고 있다. 그라브달은 12세기 초 고대 프랑스어에서 이 단어는 ‘칭찬할 만한 노력’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것이 작품에서 강간의 의미와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군사 문화에 기반을 둔 봉건적 체계모니에서 폭력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용인되었다는 것이다(Chrétien de Troyes 564-65).

로맨스에서는 기사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적 위협이 사용되고 그 기사도에 의해 성적 위협의 폭력성이 희석된다.¹⁾ 성폭력은 암시될 뿐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장미 이야기』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폭행의 장면이 획극적인 요소로 포장되어서 독자에게 제시됨으로써 긍정풍 사랑을 다루는 로맨스에서 희석된 남성들의 기만적인 성적 환상을 전면에서 드러내어 풍자하고 있다.

1) 크레티앵 드 트루아(Chrétien de Troye)의 *The Knight with the Lion*에서 주인공 이베인이 끊임없이 성폭력의 위협을 동반한 위협에 처한 여성을 구해주고 그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쌓아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성의 욕망 충족의 과정에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를 영웅시하며 자신의 폭력을 경건한 여정에 비유하는 남성의 자기만족적인 모습 또한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희생자에게 죄를 묻는 비논리적이고 부당한 현재의 관행이 이런 '남성의' 폭력, '남성적' 폭력에 대한 찬양과 맞물려서 수백년간 이어져왔다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현재의 도습이 예전의 작품에서 드러난다기보다 당시의 관행이 세월을 거치면서 변화와 변주를 거쳤지만 지금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쪽이 더 정확할 것이다. 중세의 실제 강간 관련법과 판례들을 비교하여 그러한 관념들이 로맨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면에 깔린 흐름의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이다.

현대의 강간에 해당하는 *raptus*에 대한 중세의 처벌은 사형이었지만, 강요된 성관계(*forced coitus*)의 여러 가지 주변 정황에 따라 처벌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졌고 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실제의 판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강간에 대한 중세의 처벌이 엄격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강간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폭력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물에 대한 재산권 침해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이 있는 처녀인 경우에만 문제가 됐을 뿐, 그 외 성매매 여성이나 미망인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들의 힘을 과시하는 일상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사례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가해자 남성은 소액의 벌금을 물기만 하면 간단히 풀려날 수 있었던 반면 여성들은 오히려 강간을 당한 죄로 벌을 받았다(*Ravishing Maidens* 128-33).

작품에 드러나는 태도는 이러한 당대의 관례와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피그말리온 신화 부분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피그말리온 신화 자체와는 별 관계없이 보이는 후대의 역사인 아도니스 탄생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그말리온과 조각 여인의 후예인 키나라스 왕과 그의 딸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아도니스이다. 아버의 화를 두려워한 딸 미르하는 재빨리 몸을 피하는데 화자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키나라스 왕이 그녀를 파멸시켰을 거라고 말한다. 전후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왕이 딸에 의해 속았다는 표현으로 미루어보아 이 부적절한 관계는 전적으로 그 딸인 미르하에게 지워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는 재빨리 이 이야기는 앞으로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으니 넘어가겠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성급히 마무리 지음으로써 굳이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언뜻 여담으로 여겨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될 경우 그 잘못은 여성에게 묻는 것이

사회적 관행이라는 은근한 암시인을 주고 있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²⁾ 앞으로 일어날 장미에 대한 화자의 폭력이 실은 장미와 장미를 둘러싼 이들의 잘못이지 화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이다.

이렇게 해서 화자는 교묘하게 책임전가의 논리를 구축한다. 반면 싸움에서 진 저항세력이 도망갔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과 멸시에 고스란히 노출된 여성은 마지막에 임신이라는 불편한 짐까지 떠맡게 된다. 성관계를 합리화, 정당화시켜주는 강력한 논리였던 재생산의 기능은 장미의 처녀성이 재삼 강조되는 가운데 여성이 떠맡아야 하는 또 다른 부당한 짐에 지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됐을 경우 재생산은 사회 유지가 아니라 사회 안정 저해의 기능을 하게 된다. 처녀라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임신한 여성은 상품가치가 떨어졌음을 증명하는 낙인까지 찍힌 셈이다.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화자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성을 함락시킨 사람이 화자가 아니라 사랑신의 어머니인 비너스라는 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정절을 견디지 못하는 정욕의 신인 비너스가 공격을 해오자 단번에 무너지는 저항세력의 모습은 여성이 본질적으로 정욕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한다(Ferrante 50-55). 이를 통해 실제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주체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강간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기체가 마련된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욕망을 규정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의 독자에게 이렇게 모순적이고 억압적으로 비춰지는 성폭력적 상황이 과연 당대의 여성독자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흥미롭게도 『장미 이야기』에 대한 크리스틴 드 피잔(Christine de Pizan)의 평가는 정숙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 대한 구분 없이 여성 일반을 폄하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녀는 적나라한 어휘 사용과 역시 부적절하게 적나라한 마지막 장면의 묘사에 대해 정숙한 여성답게 불편함을 표현하고 그러한 예절을 아는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을 구별한다.³⁾ 여기에는 『장미 이야기』에

2) 이미 언급했다시피, 전후 사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성관계도 성폭력적인 것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서 부적절한 성관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신했다.

3) 사실 마지막 장면에 대한 그녀의 반박을 단순히 불편함의 표현 정도로 협소하게 읽는 것은 사실 피잔의 재치를 폄하하는 것이다. 피잔은 이 부적절한 묘사에 전혀 신선함이 없다며 차라리 동물의 모습을 묘사했으면 재미라도 있었을 것이라는 기지 넘치는 답변을 제공한다.

And should your reply in his defense that he found it pleasing to describe in novel merriment the act of love in such metaphor, I can answer that he has told us nothing unfamiliar here. Do we not know full well how men and women cohabit together? Had

남성과 여성의 정육에 대한 이중 잣대가 존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이 존재한다는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 역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체화된 가치기준으로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폄하는 허용가능하다는 생각은 피해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궁정풍 사랑과 그것을 그리는 문학 장르인 로맨스에 대한 통렬한 풍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웃음을 자아내는 적나라한 묘사는 결국 웃음이라는 또 다른 문학 효과 속에 그 속에서 유린당하는 여성의 신체를 다시 한 번 간과, 혹은 무시한다. 사실 로맨스에서는 남성 주인공보다 남성주인공의 적에 의해 성적 폭력이나 위협이 야기되고 남성 주인공은 여성들을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존재이다. 때문에 물리적인 힘은 영웅적인 강인함과 잔인한 폭력의 두 종류로 나뉘고 결국 힘이 여성 등장인물의 쟁취, 획득이라는 같은 결론에 도착한다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여성 등장인물의 쟁취라는 모호한 형태가 아니라 성적 결합이라는 결론이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와중에도 여전히 여성의 신체를 유린하는 남성의 폭력성은 자랑거리고 과시의 대상이다. 어떤 순간에 작가는 남성의 성폭력을 위장하는 행태를 밝혀냄으로써 그러한 규범의 기만성을 밝혀내는 듯싶지만,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원인은 다시 고스란히 정숙하지 못한 여성의 탓으로 돌려진다. 결국 들고 도는 이 억압의 굴레에서 여성이 남성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Works Cited

- Chrétien de Troye. *Yvain, the Knight of the Lion*. Trans. Burton Raffel. New Haven: Yale UP, 1987.
- Ferrante, Joan M. *Woman as Images in Medieval Literature: From the Twelfth Century to Dante*. New York: Columbia UP, 1975.
- Guillaume de Lorris and Jean de Meun. *The Romance of the Rose*. Trans. David Staines. Bloomington: Indiana UP, 1990.
- Gravdal, Kathryn. *Ravishing Maidens: Writing Rape in Medieval French Literature and Law*. Philadelphia: Pennsylvania UP, 1991.

he told us how it is with bears or lions or some other exotic beast, such a figure might have offered some amusement, but nothing new is said here.

Lesser Treatise on the Romance of the Rose June-July, 1401

_____. "Chrétien de Troyes, Gratian, and the Medieval Romance of Sexual Violenc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7.3 (1992): 558-85.

Abstract

The Misogynist Narrative Structure of *La Roman de la Rose*: Focusing on the Sexual Violence

Yeree Sim

This paper argues that Jean de Muen's use of mythical allusions in his part of *Roman de la Rose* reveals the self-deceptive nature of courtly love convention. Jean de Muen incorporates the story of Pygmalion into the story matching the story of Narcissus in Guillaume de Lorris's part of the narrative. This mythical allusion, along with other mythical allusions he uses in the narrative, brings into focus the Narcissistic desire in the speaker's avowed love for the rose. As is the Pygmalion's object of love, the woman in the form of a rose is given a very passive role to play in the speaker's dream narrative about his sexual fantasy and the subsequent conquest. The brutal "deflowering" of the rose clearly signifies sexual violence inflicted on the woman's body despite her will; however, the speaker transforms the incident as the result of weak female constitution, demonstrating the classic case of blaming the victim of sexual violence for the crime that was committed on her. The mythical allusions in the narrative help us to see through the covert intentions of the male speaker / lover in this world of courtly love where male sexual fantasy does come true.

Key Words courtly love, mythical allusions, narcissistic desire, sexual violence